

and NO, ovarian blood, or follicular blood flow.

## P-9 말초혈액 CD56+ Natural Killer Cell의 증가에 기인하여 면역글로불린 치료 후 분만한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향후 계획 임신시 시행한 말초혈액 NK Cell의 변화에 대한 연구

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

김문영 · 송현정 · 허 곁 · 유근재 · 전종영 · 양광문

**Background & Objectives:** 말초혈액의 CD56+ NK cell의 증가에 의한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 정맥내 면역글로불린 점적을 통해 임신 유지에 성공하여 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 전과 분만 후의 말초혈액의 CD56+ NK cell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Method:** 1998년 6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삼성제일병원 불임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임신 20주 이전에 2번이상의 연속적 유산을 경험한 습관성 유산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말초혈액 임파구에서 CD56+ NK cell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측정하여 15% 이상 증가된 환자를 대상으로 질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직후부터 4주간격으로 환자 몸무게의 Kg당 400 mg의 용량으로 면역글로불린 (IVIG)을 정맥내 주사하였다. 면역글로불린 치료 후 재태연령 25주 이상 임신 유지에 성공한 환자군에서 분만 후 말초혈액 임파구내의 CD56+ NK cell 백분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당 환자의 임신 전 CD56+ NK cell 백분율 수치 및 습관성 유산의 기왕력이 없는 출산을 경험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.

**Results:** 총 연구 대상수는 31명으로 습관성 유산의 기왕력이 없는 대조군 15명,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고, 분만 후 다음 임신을 계획한 습관성 유산환자 16명이었다. 평균 나이 (mean±S.D)는 32±2.42이었다. 평균 자연유산 횟수는 2.56±1.09회였고, 유산된 주수는 8.6±1.78주였다. 대조군의 CD56+ NK cell의 백분율은 8.9±1.3이었고, 연구군의 CD56+ NK cell은 면역글로불린 주사 전에는 24.5±1.2이었고, 분만 후 다음 임신을 계획시 확인한 CD56+ NK cell은 22.5±1.5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(t-Test, p<0.005),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전후로는 통계학적인 의의를 갖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. 말초혈액의 임파구 중 CD56+ NK cell 백분율 15% 이상을 기준으로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적응증을 삼아 연구군 16명을 분류한 결과, 이중 15% 이상으로 향후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3명 (81.3%)이었고, 15% 이하를 보여 향후 면역글로불린의 치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는 3명 (18.7%)이었다. 이들의 CD56+ NK cell 백분율은 각각 24.3±5.0%, 14.5±0.4%으로 대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. 또한 이 두 군간에 나이, 자연유산 횟수, 유산된 주수, 자가면역 항체의 차이를 찾아보았으나,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진 것은 없었다.

**Conclusions:** 말초혈액내 NK cell이 증가되어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환자에 있어서는 면역글로불린으로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후에도 CD56+ NK cell의 백분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다음 임신에서도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